“화합·수행으로 성불 향해 나아가자”

천태종 제20대 총무원장 덕수 스님 취임

3월 23일 구인사서 취임법회
종정예하 “정법을 수행하라”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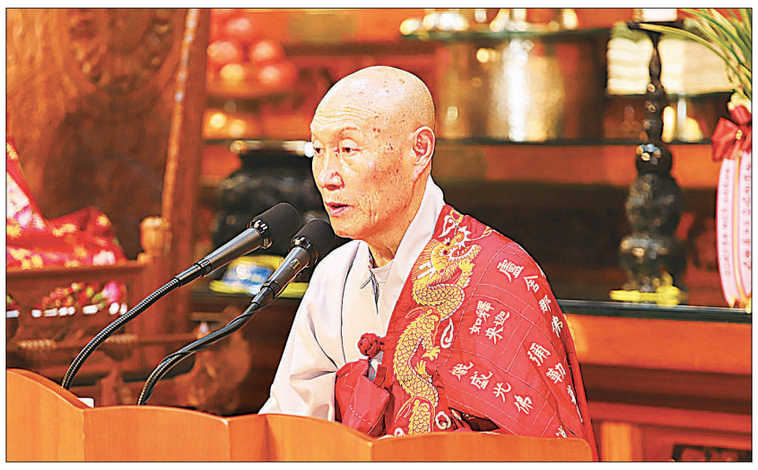
“부처님 법을 잘 믿고 실천하며, 화합과 수행으로 우리의 목표인 성불을 향해 나아가자.”

천태종 제20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덕수 스님의 취임 일성이다. 천태종은 3월 23일 오전 10시 충북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도용 종정예하를 비롯해 원로원장 정산 스님, 종의회의장 세운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 등 종단 대덕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총무원장 덕수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취임법회에서 도용 종정예하는 “정법을 수행해야 한다. 불법을 잘 키워 나가면 관음신앙을 널리 펼 수 있을 것이다. 새로 취임한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중심으로 종무행정을 잘 펼쳐주길 바란다”고 법어를 내렸다.

이어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부처님과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도록 힘쓰며,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무엇보다 화합과 질서로 지금 이 시기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며 “주어진 일에 모든 책임을 다하며, 매일 마음을 닦아 성불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장 진덕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금일 대한불교천태종 사부대중이 제20대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하며 부종수교와 광도중생의 원력을 굳건히 하고자 고하오니 대자대비로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종단의 사부대중이 일심으로 화합하며 법고창신의 지혜로 종단 발전과 한국불교 발전에 이바지하길 서원하옵니다”라고 부처님 전에 고했다.


천태종 제20대 총무원장 덕수 스님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원로원장 정산 스님도 축사를 통해 “신임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젊은 시절 구인사로 입산해 바위 같은 원력으로 수행자의 기품을 정립하면서 정진에 매진하시고, 종단의 대소사에도 많은 공헌을 하셨다”면서 “덕수 스님께서는 종단을 더욱 결속하고 발전되게 해 불자·전국 사찰신도회·종단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승묘법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취임법회는 총무부장 갈수 스님의 사회 아래 △삼귀의례 △국운융창기원 △찬불가(천태합창단) △반야심경 봉독 △상월원각대조사 법어(종의회의장 세운 스님) △고불문 △종정예하 법어 △총무원장 덕수 스님 수행이력 소개(교무부장 도웅 스님) △꽃다발 증정(영춘 태광사 전하람 어린이) △취임사 △축가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덕수 스님은 1971년 상월원각대조사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2013년 제2급 종사(宗師) 법계를 품수했다. 스님은 동국대 교육대학원과 불교대학원서 수학했으며, 총무원 규정부장·교무부장·총무부장, 8·9·10·11·14대 종의회 의원 등 종단의 여러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 최근에는 구인사 국제선원장과 종정 사서실장을 지냈다. 또한 청주 명장사·부산 삼광사와 광명사를 비롯한 종단 사찰의 주지직을 맡아 각종 불사와 전법 교화에 매진했으며, 학교법인 금강불교학원 이사·천태불교문화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하며 종단의 교학 발전에 힘썼다.

종단의 대소사를 맡아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의 정신으로 수행에 전념해온 덕수 스님은 민주평통자문위원을 수차례 역임하며 교도소 교화 활동에 앞장선 공로로 1986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비롯해 1999년 국방부장관 표창·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한 바 있다.

“대행선사 우리말 선시·게송, 생활포교 실천 사례”

김종진 교수, 3월 18일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서 주장

대행선사 ‘게송·선시’ 77수 분석
자연 이미지 활용, 수행 이해 높여
민요적 가락 표현, 전달력 강화
“선사의 선시는 한국·현대적 게송”
동광 스님, 〈논궤〉 저술 문제 논의

대행 선사가 생전에 남긴 우리말 선시와 게송이 “생활 속 수행과 포교의 실천이자 전통 게송을 계승한 한국적, 현대적 게송”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3월 18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14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바다를 메우는 한 방울의 눈물-대행 선사 게송·선시의 문학적 탐색’을 발표하고 대행 선사의 게송과 선시를 문학적으로 분석했다. 그간 대행 선사의 게송과 선시를 수행적, 포교학적 등으로 조명한 연구들은 있었지만, 문학적으로 구조와 표현을 연구한 논문은 이례적이다.

김종진 교수는 〈한마음요전〉 ‘게송·선시’ 편에 수록된 대행 선사의 게송·선시 77수를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선사의 게송과 선시가 한마음, 주인공 등 핵심어를 통해 마음공부 3단계를 시적으로 구조화하고 있다.

김 교수는 “대행 선시는 득도의 순간을 노래하는데 그치지 않고, 마음 수행의 단계를 이해하기 쉽게 구조화했다. 여기에 친근한 자연물을 활용해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과거 게송과 다르다”라며 “대행 선사는 전달력을 높이는 시적 구조를 활용했고, 개별 게송에 특색 있는 표현 방식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행 선사는 자연 순환과 재생의 시어를 통해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있으며, 민요적 가락으로 전달력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김 교수는 “〈한마음요전〉에 쓰인 편명으로서 ‘게송’은 대행 선사가 시적 구조를 가지는 시 작품을 창작하겠다는 의식보다는 법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읊어낸 법문의 시적 형태”라며 “선사의 모든 작품은 게송의 전통을 따른 한국적 우리말 게송이자 현대적 게송”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선사의 게송에는 압축과 상징, 비유로써 시적 비약을 이루는 예도 적지 않다. 이는 옛 선사들이 격외의 일구를 던짐으로서 발심과 증득의 계기를 만드는 전통적 방식과 같은 것이다. 이는 “불립문자의 선적 비의(秘意)를 화두로 제시해 독자나 청중을 계발하는 대행 선사의 기법”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3월18일에 열린 대행선연구원 제14회 계절발표회에서 김종진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또한, 김 교수는 대행 선사의 선시와 게송이 문화사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처님오신날, 안거 결제·해제일에 한 문구나 시구를 발표하는 20세기 후반에 대행 선사는 우리말 법어와 선게를 제시하되 민요적 속성을 활용해 직접 구연했다는 사실은 문화사적으로 특기할 만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마음요전〉 ‘게송·선시’ 편의 77수는 대행 선사의 사상과 개성이 담긴 우리 시대의 철리시(哲理詩)이자 선시”라면서 “선사의 수행은 생활 속 수행을 지향했는데, 대중을 위한 우리말 게송은 생활 포교·수행의 실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회에서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초빙교수 동광 스님이 ‘〈논궤〉는 외도의 궤변인가-디그나가의 바수반두의 저작 불인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이번 발표회에서는 처음으로 한마음선원 지원 불사과정도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장 혜근 스님은 ‘혜근이 받든 대행 선사의 법문을 혜근이 기록함’이란 주제를 통해 진주지원 창건 과정과 대행 선사의 관련 법문을 대중들에게 설명했다.

학술 발표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달 대행선연구원의 학술지 〈한마음연구〉 10집이 출간됐는데, 현재는 학진 등재후보지 이지만 내년에는 등재지로의 승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유익한 논문들의 발표를 경청하며 다시 마음을 새겨 공부에 매진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천년고찰 고운사 이젠 가상현실서 만난다

3월 17일, 메타버스 구축 설명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기대 높여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가 메타버스를 통한 대중 소통에 나선다. 다양한 불교 전통 문화를 지역 특화 콘텐츠로 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운사는 3월 17일 경내 우화루에서 ‘고운사 메타버스 설명회 및 데이터 구축 작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운사 메타버스 및 데이터 구축작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2022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이다. 경북과 전북, 서울 등 3개 지자체에서 18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며 2년 간 약 9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지역 문화관광 프로젝트다.

고운사는 ‘천년고찰 고운사’를 주제로 경내를 디지털 3D로 구축, 가상공간에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발우공양, 108배, 탑돌이 등의 체험을 다양한 VR과 AR 콘텐츠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이끄는 다나미디어는 경북 의성 스마트팩토리, AI기반 DX전문기업인 에프원소프트와 협력, 더욱 완성도 높은 고운사 메타버스를 만들고 이를 통해 불교계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운사 부주지 정우 스님은 “고운사 메타버스 개발로 지역 관광산업의 질이 높아지고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가상체험을 통해 힐링하길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고운사 부주지 정우 스님, 남대현 경북도청 메타버스 프로젝트팀장, 전영훈 의성군혁신전략팀장, 이동격 다나미디어 대표, 이일우 에프원소프트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고운사는 경내 우화루에서 ‘고운사 메타버스 설명회’를 개최했다.

‘안성 청룡사 금동보살좌상’ 보물된다

문화재청 3월 13일 지정 예고
전적 〈수능엄경의해〉권9~15도

고려시대에 조성된 안성 청룡사 금동보살좌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수능엄경의해〉 권9~15 등 4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3월 13일 밝혔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 후기인 14세기에 제작된 보살상이다. 이 보살좌상은 갸름한 얼굴에 복스러운 얼굴 표정, 보계와 귀걸이, 고개를 앞으로 내민 구부정한 자세 등의 표현에서 고려 후기 전통양식으로 이해되는 일군(一群)의 보살상과 유사성을 보인다.

문화재청은 “다소 좁고 왜소한 어깨, 긴 허리, 높은 무릎 등의 표현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변화하는 전통양식을 보여준다”면서 “이 같은 양식의 보살좌상이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진 데 반해 드물게 금동으로 제작되었다는 점, 복장에서 발견된 중수발원문에 보이는 기록을 통해 그 내력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서 역사적, 미술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수능엄경의해〉 권9~15는 인도 승려 반라밀제가 중국 당나라로 전래·한역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10권을 중국 남송의 함휘(咸輝, ?~?)가 30권으로 엮은 주해서(註解書) 중 권9~15에 해당하는 경전이다. 해당 경전의 간행시기·간행처, 간행자 등을 적은 각 권말의 간기(刊記)를 통해 조선 세조 8년(1462) 간경도감에서 경판을 만들어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은 “해당 경판은 현재 전하지 않고, 이 경판으로 인출한 인경본(印經本)도 많지 않다. 때문에 지정 예고 대상인 〈수능엄경의해〉 권9~15는 전 30권 판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비교적 많은 양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유일한 권수로 희귀성이 있는 귀중한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안성 청룡사 금동보살좌상 등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부처님오신날 표어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봉축위 봉축표어·포스터 발표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와 연등회 포스터가 공개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진우, 이하 봉축위)는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봉표어로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Peace of the Mind, World of the Buddha)’을 선정했다”고 3월 21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봉축표어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은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안한 일상을 이겨내온 국민들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모두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부처님 세상이 되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봉축위는 “개개인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면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 세상이며, 불자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치유와 안정을 통하여 마음의 평화를 찾고 궁극의 평화인 부처님 세상을 이뤄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봉축표어인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처럼 연등회를 포함한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가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각자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이 움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포교원, 4기 불교크리에이터 모집

4월 7일까지 접수…5명 선발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뉴미디어 포교 활성화를 위한 불교 크리에이터 4기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불교를 소재로 한 웹툰, 카드뉴스, 영상, 디지털 아트, 뮤지컬, 음악 등으로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연재 가능한 콘텐츠여야 한다.

불교 크리에이터는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종중과 이해를 갖춘자로서 창작분야에 전문성을 겸비함과 동시에 불교콘텐츠 제작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3월 20일~4월 7일이다. 조계종 포교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메일(hy@buddhism.or.kr)로 제출하면 된다. 5명 선발 계획이며, 선정된 크리에이터는 200만 원의 창작지원금과 홍보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5월 위촉식 후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본인의 SNS에 월 1회 이상 콘텐츠를 업로드 해야하며 전반의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크리에이터에게 있다.

포교원은 “뉴미디어 상에 불교콘텐츠를 확대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